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21 일 (2025 년 6 월 17 일)

토라 부분: 솔라크 (Shelach)

주제: 죄에 기울이는 성향, 제 1 부

민수기 13:16 에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쉬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성격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게마라(브라코트 7b)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미래에 이를 행동을 나타낸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시편 46:8 의 구절,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황무지/폐허”라는 단어는 “이름들” 이라는 동일한 히브리 네 글자 נ.י.מ.ש 입니다. 그래서, “נִימָשׁ (샤-모트, “폐허”)는 단어는 נִימָשׁ (셰-모트, “이름들”)로써 해석됩니다. 이리하여 이 시편 46:8 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세우신 그 이름들, 그의 행위들을 와서 보라.” 즉,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세상에서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에 따라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예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엘로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르도록 영감을 주시기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든 작명 할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 자체에는 이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이 그에게 얼마나 적절했는가가 행실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드라쉬는 네 가지 부류의 성향을 제시합니다: (1) 이름은 훌륭하나, 행동은 악한 자들; (2) 이름도 행동도 악한 자들; (3) 이름은 악하나, 행동은 훌륭한 자들; (4) 이름도 행동도 훌륭한 자들. 미드라쉬의 이름과 행실의 관계성의 면밀한 검토는 사람의 이름이 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 이름에 담겨있는 예언적 가능성이 그 사람의 자유 의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훌륭한 이름을 받았지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고, 반대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은 이름을 가졌지만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어느 한 방향으로 성향이 강하여 태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성향에 따른 행동을 선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자의 속성에 근거하여 선물 받은 자유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성향을 바꾸고 선을 이루거나, 오히려 악으로 퇴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의롭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악하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될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세가 이름에 악한 뜻이 내포된 열 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택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품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뽑혔을 당시에는 의의 길을 걸었을 것이었으며, 모세에게는 그들이 악으로 향하리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A Daily Bread

미드라쉬는 각 범주에 대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1) 첫 번째 범주, 이름은 훌륭하나 행동은 악한 자들중의 대표적 예를 살핍니다. 첫째로는 “에서” 입니다. 그의 이름은 ‘행동하는 자’(הַשֵּׁרֵט/ 오세) 에서 유래한 שָׂרָפ (아소)와 관련이 있으며, 선행을 행함을 뜻을 내포한 이름입니다.

둘째로는 “이쉬마엘” 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로힘의 음성을 듣는 자”(שִׁמְעָאֱלֹהִים)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실제로 그의 행동들은 그 이름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쉬마엘이 에서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미드라쉬는 에서를 먼저 언급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의 악행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름과 행동이 상반된 사례로 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쉬마엘의 경우 엘로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기록된 한 견해에 따르면 그는 돌아가기전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Nezer HaKodesh (저자: Moshe Rosen, 1870 – 1957) 는 이렇게 분별하며 덧붙입니다: 이쉬마엘과 에서는 존귀한 집안의 자손으로써 부모의 선한 성향과 완전한 탁월성을 타고 났지만, 그들은 자유 의지를 행사하여 이름과 태어난 본성을 거스르고 엘로힘을 대적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죄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이름은 악하나 행동은 훌륭한 자들입니다: 이 예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찾습니다. 바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르후르의 자손 (에즈라 2:51) —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준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각각 ‘분쟁’(Bakbuk), ‘공허’(Hakupha), ‘짐승 혈기’(Harhur) 등을 의미하여 본래는 악한 기질을 연상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재하였던 악의 성향을 극복하고 선과 의의 행실을 맺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느디님, 즉 기브온 사람의 후손들로, 여호수아를 속여 개종 허락을 받아냈었고, 이스라엘 자손과의 혼인을 금지당한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북, 하쿠파, 하르후르의 자손들은 이름과 태생에서 주어진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세계에 연관된 성품과 환경적인 한계성을 극적하고 이겨낸 그들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창조주 여호와 엘로힘께, 마치 욕이 엘로힘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 얻으신 바와 같이, 그들은 각 생애에서 곱절의 보상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3:1-2)

shalom